처음 만난 플레이리스트

나는 음치이다. 그리고 박치이다.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른다. 철이 들고 이 사실을 알았다. 못하는 이런 내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 이후 난 노래방을 싫어했다.

잘 부르지 못하니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다. 학생, 군대, 회사로 연결되는 단체생활에서 장기자랑 시간은 고역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할 것 없으면 노래라도 하라고 하지만, 나는 가장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말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그렇게 노래를 안 하니 더 못하게 되고, 관심도 없다 보니 가요부터 팝송까지 그 흔한 유행가도 모른다.

유행하는 노래를 모르니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도통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춤도 못 추고 그 시간에 대체할 것이 없으니 스스로 점점 움츠러들고, 입도 떼지 않으려고 하니 나 때문에 분위기만 더 어색해지고, 그러니 나에게 이런 시간들은 매우 고역이었고 나중에는 회식도 피하게 되었다.

내 삶에서 음악은 없다. 혼자 운전하는 장거리 차 안에서도 음악보다는 팟캐스트를 듣는다. 아니면 차라리 조용히 도로와 차가 부딪히는 마찰 소리를 듣고 간다. 그렇다 보니 어쩌다 둘이서 장거리 여행을 가면 고역이다. 동승자의 취향인 노래들이 가끔 나를 예민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동승자가 자고, 나는 편하게 팟캐스트를 듣는 게 좋다.

이런 나도 음악과 가장 친한 시기가 있다. 노동 강도가 높을 때다. 노동요로 음악을 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빈 시간을 채우는 것이다. 이때는 한 곡을 무한 반복해서 듣는다. 대학 건축학과생일 때 밤새우며 과제를 할 때 그랬고, 회사에서 철야를 할 때 그랬다. 이때 노래는 음악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힘든 몸과 생각 대신, 빈 공간을 채우는 것뿐이다. 그래서 한 곡을 수백 번 들어도 한두 소절의 가사만 생각이 난다. 그러다 보니 가사를 반 이상 기억하는 노래가 한 곡도 없는 것 같다. 가사를 잘 모르니 노래가 흘러나와도 따라 부르기가 어렵다.

나도 가끔 혼자 차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를 때가 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했을 때 그 슬픈 감정을 잘 아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운전하는 차 안, 그리고 슬픈 노래들이다. 이때가 음악을 가장 음악처럼 소비할 때이다. 그러니 노래는 나에게 평생 슬픈 키워드이다. 그렇다 보니 평소 내 일상에서 노래라는 키워드는 멀다. 특별히 가깝게 있고 싶지 않았다.

이런 음악을 잘 즐기지도 못하고 음치에 박치인 나도 노래를 잘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중학교 때 한 곡만 죽어라 연습해서 드라마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연애도 하는 주인공이고 싶었다. 몇 번 혹은 며칠 시도를 해보았지만, 재능이 없어 효과는 없었고, 아쉽게도 난 재능을 넘어설 그런 꾸준함도 간절함도 부족했고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 이후로는 노래에 대한 욕구가 딱히 없었던 것 같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한동안 음악 없는 삶을 잘 살고 있었다. 그러다 혼자 독립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 개인이 무엇이든 하려면 유튜브에 무엇인가를 올려야 할 시대가 왔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음악이 꼭 들어가야 한다. 내가 음악을 모르니 음악 부분을 남에게 미루게 되고, 다른 이가 선택한 음악들을 넣어 영상들을 만들고 있었다. 중간 소통의 과정에서 아주 작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음악 없는 삶은 유지되고 있었다.

AI라고 하는 머시기가 나왔다. 비슷한 것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했다. 유행이 되었다. 사람들이 합성 작업을 AI로 즐기면서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난 불편했다. 내가 직접 그리거나 포토샵으로 수정하면 되는데 AI는 멍청해서 내가 직접 하면 20분이면 할 것을 몇 번을 다시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 처음 만들기는 쉬웠는데 원하는 수정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불가능했다. AI는 멍청했다.

AI가 쭉 멍청할 줄 알았다. 잊고 살았다. 그러다 문득 여기저기에서 업무 자동화를 한다고 하면서 맥미니를 사는 사람이 나타났다. AI가 코딩이 되고 똑똑하다고 칭찬이 계속된다. 업무 자동화라, AI가 나 대신 회사 메일에 답장을 해주고 서류를 정리한다고 한다. 윈도우에도 된다고 하니 결국 나도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했다.

된다. 되네, 무언가가 된다. 전체 일하는 시간은 줄지 않았는데 일을 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나 대신 AI가 무엇인가 해주고 있다. 결국 유료 결제를 시작

했다. 며칠로 시작한 것들이 몇 주 그리고 몇 달로 연결되면서 일과 관계된 것들에서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AI가 돈을 벌어주거나 획기적이진 않다. 그런데 무언가가 되니까 재미가 있다.

재미있게 AI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다. 쓰고 고치고, 또 고치고 일을 위해 했지만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어른들의 놀이라고 할까, 집중이 절로 됐다. 한참을 즐겼다. 자동으로 무엇인가 돌아가니 성취감도 생기고 이전에 손도 대지 못했던 것들이 되니 신기하고 흥분도 됐다. 한도가 떨어지면 아쉽고, 한도가 풀리자마자 중독자처럼 집중했다.

그러다 문득 AI로 노래도 만든다는 소문이 생각났다. 순식간에 키보드로 내 감정들을 글로 나열해 가사를 적고, “남자가 통기타 분위기에 혼자 흥얼거리는 창법으로 절대 고음 금지, 클라이맥스 금지, 코러스 금지”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생성을 눌렀다. 노래가 나온다.

AI에서 노래가 나오자마자, 플레이어를 눌렀다. 내가 작성한 가사가 통키타 소리에 낮은 중저음 가수 목소리에 얹혀 핸드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기대감이 올라가고 내가 적은 가사를 끝까지 하나하나를 들었다.

다시 듣고 또 들었다. 처음에 마냥 신기하고 흥미로웠던 감정이 걷히고 이제야 부족하다는 것이 들리고, 가수 발음이나 가사의 어색함이 들렸다. 첫 노래는 무언가가 아쉽고 부족했다.

듣고 또 듣기를 반복하며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가사를 변경해 계속 만들었다.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수정하고 만들고 또 만들었다. 처음 AI를 통해 합성 이미지를 만들 때가 생각났다. 세부적인 걸 수정할 순 없다. 만들 때마다 전혀 새로운 게 나온다. 내가 세세하게 수정할 수 없다. 그런데 AI가 멍청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수정하고 만들고, 또 수정하고 만들고를 반복하면서 내가 노래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 했다.

AI라는 기술적 흐름은 내가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가 못하는 부분을 메워준다. 예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려면 관련된 것을 모두 잘하거나, 잘하는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했다. 지금은 내가 가사와 노래 가이드만 내 취향대로 기획하면 AI가 나머지를 채워준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만들 수 있

다. 지금 난 내 노래를 만드는 자체가 즐겁고, 내가 음악도 즐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지금 나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면 내가 만든 노래로 채워진 플레이리스트를 틀고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며 산다.

나는 내가 들을 노래의 가사를 쓰고, 노래를 직접 만든다.

나는 만든다. AI라는 기술이 내가 잘하는 것을 집중하게 해준다. 나는 만든는 게 좋아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수없이 만들던 내가 음악분야에서만은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나는 내가 잘하는것에 집중하고 내가 만든 것들로 체워진 영상에 내가 만든 음악을 넣고 있다. 앞으로 내 분야는 확장되고 스스로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면 된다. 만드는것에 끝이 없다